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적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어제 인사청문회
직무수행계획과 청문회 답변 엇갈려… 정책 구체성 도마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사의 청사진을 내놨지만, 문 예정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이어졌다. 특히 문 예정자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과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등 구체적인 정책 구상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5일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문 예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제주관광공사 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항공산업, 케이블카 등 신규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한동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여부를 묻자 문 예정자는 계획서와 다소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문 예정자는 한라산 케이블카와 관련해 "처음 듣는 것"이라고 답하다가, 뒤늦게 생각난 듯 "그것은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익 사업을 하라고 하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것"이라며 "케이블카는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라기보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김효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직무수행계획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직무수행계획서와 관련)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었던 것이냐"며 따졌고, 이에 문 예정자는 "검토보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인데,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 구상을 툭툭 던지듯 제시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5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함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문 예정자가 소유한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두고 추궁이 이어졌다.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는 문 예정자의 농지가 최근까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문 예정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전문가 등에게 합법적으로 농지 경영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문 예정자에 대한 자격 검증도 이뤄졌다. 문 예정자가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15년간 연구논문 1편 없이 각종 위원회 등 대외활동에 집중한 것을 두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문 예정자는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면 (각종 위원회 등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뒤 '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도 제주 소외

농림부 내년 시범사업 공모에 총 34개 군 신청
기초자치단체 없는 제주, 신청 기회조차 없어

국비가 투입돼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되지만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청 지역 중 18개 군 내외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2월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 6월 7개 군을 추가로 선정해 현재 총 17개 군이 참여 중에 있으며, 추가 공모 당시 44개 군이 신청해 시범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자치권이 없는 두 개 행정시만 두는 행정체제개편이 단행됐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 지원 사업에서는 계속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제주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 항공 이동권, 제주지원위 안건 상정해야"

문대림, 국회 예결특위서 범정부 대책 마련 촉구


문대림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과 추자도 주민의 1일 생활권 확보, 제주 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 항공 이동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제주 항공 접근성 악화가 도민의 이동 불편을 넘어 관광객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항공 좌석 공급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제주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역할을 부여했다면 자유로운 이동에 필요한 교통 기반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 등 문 의원이 제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 녹두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길 열리나

김성범 "농금원 기초조사 착수 계획 보고 받아"


김성범 국회의원

제주 녹두 재배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기초조사가 이달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4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이달 제주지역 녹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여건과 생산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제주지역의 재배 여건을 보험 확대 검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업지역 확대 여부는 향후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녹두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남 무안과 신안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어 제주 농가는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범 의원은 "이번 조사가 실제 보험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지역 확대를 앞당기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시설관리공단 임추위, 이사장 후보 2명 추천

도내 인사… 내주 지명 전망

초대 제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내달 10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평가를 통과한 이사장 응모자 4명을 상대로 면접 등을 거쳐 이 중 2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위성곤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했다. 후보 2명은 모두 도내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지사는 이르면 다음주 초 이 중 1명을 이사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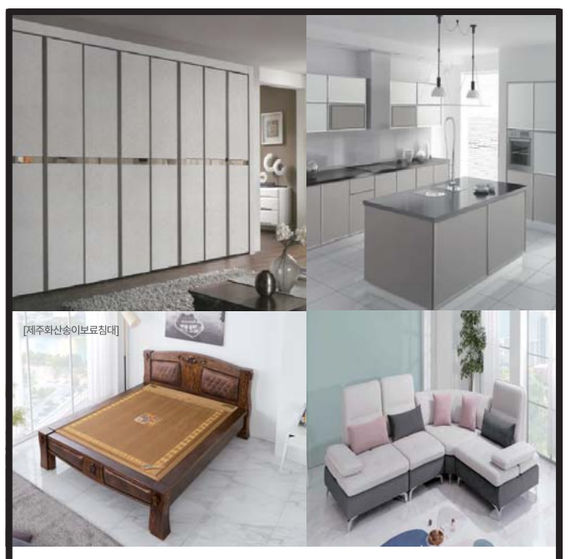
실무부서는 위 지사가 후보자 지명을 마치면 이달 20일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실무부서는 이사장 후보자 지명에 대비해 12월 10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도의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다수 환경 기초시설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 민간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수차례 시도했다. 민선 5기 때는 용역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타당성을 확보하며 설립 조례안까지 제출됐지만 1000명 이상의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민선 8기 도정 들어 3번째 도전 끝에 설립 조례안이 올해 3월 의회를 통과하며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기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